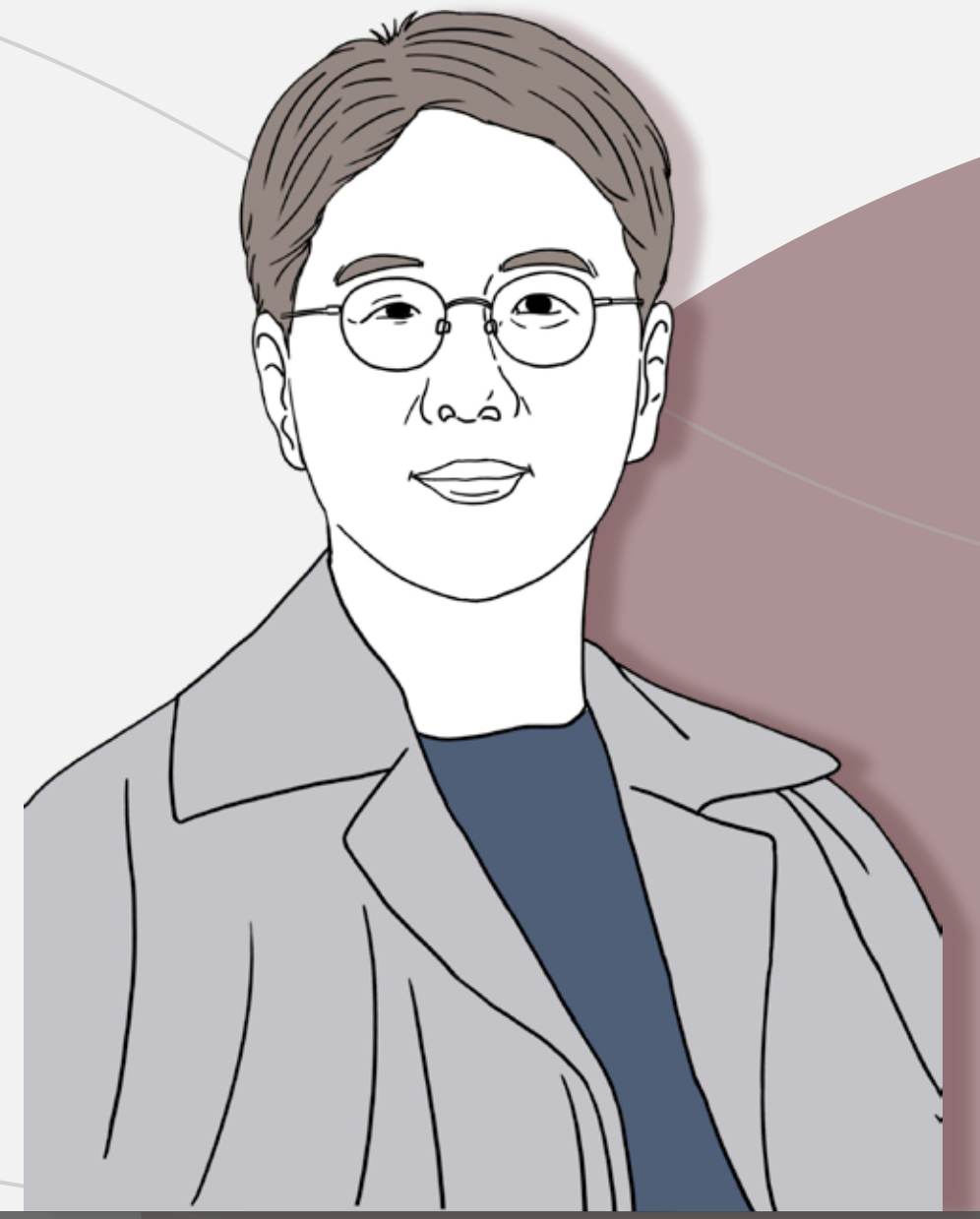


존경하는 한국방송학회 회원 여러분!



제36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후보
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의 전범수 교수입니다.
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회원님들께 전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

저는 1차와 2차 홍보물을 통해 한국방송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세부적인 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. 앞으로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과제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.

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학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,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이번 3차 홍보물에서는 학회 구성원을 포함해 학회 미래 정체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
학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선거 기간 동안 회원님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회원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“봉사”였습니다. 낮은 자세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학회를 더 잘 발전시켜 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.

봉사에 포함된 또 다른 의미는 학회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, 그리고 회원들 간 연결이나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. 저는 회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회 회원님들이 학회 활동에 무관심하거나 참여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.

시간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소통이, 지역적으로는 지역 내 학교와 학생, 교수님들 간에 유기적인 연결 고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는 분과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회원 및 학교에 대한 소개와 공유, 그리고 글로벌 학자와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참여 연구를 포함해 분과별 회원들 간 지식 소통 공간을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.

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재미있고 보람된 학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단순히 학회에 나와 논문을 발표하는 일 이외에 회원님들 모두가 서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다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즐겁고 보람된 모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관계는 물리적, 심리적 근접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미술 전시와 공연 관람, 영화 및 스포츠 관람 등과 관련된 미디어와 방송 연구들을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회원님들 연구와 취향을 서로 연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점들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.

학회의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다질 수 있는 미래 정체성을 모색하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 한국방송학회의 미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단계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한국방송학회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권위와 브랜드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. 다만, 방송으로 외연이 제한되어 새로운 융합 미디어나 콘텐츠 접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경청해 미래 학회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내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학회의 정체성을 재평가하고 새롭게 외연을 확대하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해안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.

여름을 지나 가을의 빛과 색감이 더해지면서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회원님들과 함께 한국방송학회를 글로벌 학회로 도약시키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잘 끌어 모으겠습니다. 11월 12일 한림대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회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.

제36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후보 전범수 올림